

반려동물의 종류 및 특징

⑥ 비글 / Beagle



글 | 박수영 사무처장(대한수의사회)

“힘겨운 여행을 끝내고 무거운 짐을 끌며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와 내가 방을 뒤흔드는 게 아닌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본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다른 아닌 여객 터미널입국장(CIQ: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에서 마약류 또는 불법밀반입축산물을 탐지하기 위한 탐지견들이다. 귀엽고 작은 외모와는 달리 다부지게 임무를 수행하는 개들은 바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누피의 주인공인 비글이다.

이 탐지견들은 2001년 11월에 도입되어 세관의 X-ray 검색보다 훨씬 많은 적발실적을 올렸고 전국의 공항·만 등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글의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1066년경 영국에 전해졌고 주로 왕족의 사냥에 이용되었으며, ‘비글’이라는 이름은 15세기부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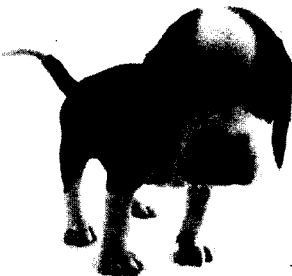
뛰어난 후각능력은 이미 가장 오래된 사냥개로 비글을 인정받게 했고 현재엔 그러한 능력을 탐지견으로서 발휘하고 있다.

1. 성격

토끼 사냥을 위해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며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비글이 얼마나 명랑하고 유쾌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작고 명랑한 비글은 보기와 다르게 우렁찬 성량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이 무척 강하여 간혹은 고집 센 꼬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무리지어 사냥하던 개답게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에게 우호적이다.

예전에 검역탐지견 훈련사를 방문했을 적에 휴식 중이던 비글들을 보았는데 나를 보자마자 마치 땅



에서 터져 오르는 폭죽처럼 우렁찬 소리로 짖어대며 연신 뛰어오르던 모습들이 호기심 많고 명랑한 비글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 같다.

누군가 비글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비글의 호기심과 명랑함을 감안하여 반드시 개줄을 착용하고 어디로 될지 모르는 이 개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 공원 한구석에서 녀석의 호기심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해매게 될 수도 있다.

2. 외형

비글은 작지만 탄탄한 몸매를 가졌고 맑고 빛나는 눈빛과 짧은 털로 덮여 전체적으로 강인한 인상을 준다. 외형에 대하여는 영국식표준과 미국식표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크기는 수컷 36~41cm, 10~11kg / 암컷 33~38cm, 9~10kg 정도이다.

큰 눈과 크고 볼에 접해 늘어져 있는 귀와 장방형의 체형과 근육질의 단단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꼬리는 몸에 비해 굵고 언월도 모양으로 꼳꼳이 서서

흔들고 있다.

넓은 코와 길며 부드러운 귀와 보통 길이인 목이 근육질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똑바른 다리는 뼈가 둥글고 튼튼한 발을 갖고 있으며 짧고 잔잔한 털을 가지고 있거나 거칠고 굵은 털을 가지고 있는 종류도 있고 색깔은 다양하다.

3. 사양 및 건강관리

자신의 주거 환경이 작은 체구에 비해 짖는 소리가 큰 비글을 키울 수 있는 곳인지를 감안해야 하고 운동과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주변 야외 장소가 있는지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집 세고 시끄러운 말썽꾸러기 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훈련과 다른 견종보다 보호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큰 귀가 아래로 늘어져 있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습하게 될 수 있어 정기적인 귀청소가 필요하고 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음식 조절과 운동량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유전적인 안구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망막 위축증과 척추디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㉟

〈다음호에 계속〉

